

# '95, 3/4분기 中企經營實態와 '96년 産業別 景氣展望

李 揆 哲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지회 과장〉

## 一. '95, 3/4분기 中企經營實態

中小企協中央會가 業種別組合의 會員業體中 總 1,200여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95, 3/4분기 경영실태를 紹介하고 나아가 산업 연구원에서 내 놓은 '96년도 산업별경기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95, 3/4분기중 中小製造業의 생산 및 판매활동은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4분기 보다는 호조세가 다소 둔화되었고, 생산설비를 위한 투자도 前分期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資金事情도 원할치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고무·프라스틱, 조립금속·기계장비, 전기·전자·통신, 자동차·운송장비업종의 생산과 판매 활동은 호조를 보인 反面, 의복·가죽제품, 출판·인쇄, 화합물·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등의 업종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각 주요 부문별 요약해 보고자 한다.

### I. 생산동향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 3/4분기중 중소기업의 생산동향은 前分期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40.1%, 同一한 것으로 응답한 업체가 27.8%,

감소응답은 32.1%로 생산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분기에 比해서는 생산 호조세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고무·프라스틱, 조립금속·기계장비, 전기·전자·통신기기, 자동차·운송장비 등은 생산활동이 활발한 반면 섬유제품, 의복·가죽제품, 종이제품, 출판·인쇄, 화합물·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업종 등의 생산활동은 부진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 II. 판매동향

同조사에 의하면 '95, 3/4분기중 중소기업의 판매동향은 전분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40.8%, 동일 응답이 24.9%, 감소한 것으로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34.3%로 나타나 판매활동은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나 전분기보다는 판매 호조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고무·프라스틱, 조립금속·기계장비, 전기·전자·통신기기, 자동차·운송장비업종의 판매활동이 좋은 반면, 의류·가죽제품, 출판·인쇄, 화합물·화학제품의 판매활동은 부진한 편이었다.

그리고 판매활동에 있어서 내수부문과 수출부문에 걸쳐 이들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업종별로 겪는 애로사항의 비중은 어떻

게 나타나는지도 조사되었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5. 3/4분기중 중소기업의 내수판매에 있어서 겪는 애로는 업체간 과당경쟁이 37.1%로 가장 높고 다음이 내수시장의 협소(27.2%), 수주조건악화(14.8%)의 順으로 나타나 좁은 국내시장에서 업체간의 과당경쟁이 큰 애로사항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섬유제품, 의복·가죽제품, 목

재·나무제품이 내수시장협소를 내수판매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펄프·종이제품업종에 있어서는 업체간 과당경쟁이 내수판매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것은 펄프·종이제품과 화합물·화학제품업종의 경우 대기업에 의한 영역잠식이 내수판매를 어렵게 하는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표 1〉 내수판매상 애로사항

(단위 : %)

구 분		내수시 장협소	수입물량 공급과잉	소비패턴 변 화	대기업 영역잠식	업체간 과당경쟁	수주조건 악 화	유통망확 보어려움
중계 소업	'95. 2/4분기	27.8	4.8	6.0	5.3	35.0	15.6	5.5
	'95. 3/4분기	27.2	4.7	5.9	5.6	37.1	14.8	4.7
관형 태 매 별	내 수 업 체	25.8	3.9	6.1	5.5	38.8	15.1	4.8
	수 출 업 체	36.5	10.1	4.7	5.7	25.9	12.3	4.8
업 종 별	음 식 료 품	21.1	1.8	10.6	8.8	39.2	6.6	11.9
	섬 유 제 품	36.5	10.3	9.6	4.0	28.2	9.3	2.1
	의복·모피·가죽	36.6	5.2	5.2	7.6	32.0	10.5	2.9
	목 재 · 나 무 제 품	39.4	11.3	8.5	0.0	26.8	11.3	2.7
	펄프·종이제품	17.2	3.4	2.6	10.3	48.3	14.7	3.5
	출 판 · 인 쇄	34.6	1.4	1.4	2.4	41.2	15.9	3.1
	화합물·화학제품	33.8	5.4	1.4	9.5	33.8	13.5	2.6
	고무·플라스틱제품	24.4	3.2	5.8	7.1	35.3	17.9	6.3
	비 금 속 광 물	35.8	2.2	5.4	3.5	38.9	11.1	3.1
	제 1 차 금 속 산 업	19.9	4.5	3.5	6.0	39.3	20.9	5.9
	조립금속·기계장비	21.9	3.6	5.1	5.7	37.7	21.7	4.3
	전기·통신·시계	19.5	6.1	5.7	4.6	41.2	16.0	6.9
	자동차·운송장비	24.0	4.8	1.4	5.5	37.0	24.7	2.6
가구·기타제조업	23.6	6.8	10.1	6.6	35.9	11.0	6.0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업체간 과당경쟁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격경쟁이 36.1%, 제품판매가 33.5%, 인력확보 14.5%, 품질경쟁 7.2%등의 順으로 가

격과 판매에 있어서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금속광물, 목재·나무제품이 제품판매에, 자동

〈표 2〉 업종별 업체간 과당경쟁부문

(단위 : %)

구 분		제 품 판 매	원자재 구 입	인 력 확 보	기 술 확 보	가 격 경 쟁	품 질 경 쟁
중소제조업	'95. 2/4분기	32.1	10.2	15.0	2.1	33.5	7.1
	'95. 3/4분기	33.5	6.3	14.5	2.4	36.1	7.2
판매형태별	내 수 업 체	34.6	6.0	14.6	1.9	36.0	6.9
	수 출 업 체	27.8	8.2	13.4	4.7	36.8	9.1
업종별	음 식 료 품	37.4	10.9	6.1	0.9	38.3	6.4
	섬 유 제 품	32.7	4.8	18.3	2.4	37.8	4.0
	의복·모피·가죽	43.0	5.9	15.1	0.5	29.6	5.9
	목재·나무제품	43.7	9.9	4.2	0.0	40.8	1.4
	펄프·종이제품	35.0	13.8	11.4	4.1	31.7	4.0
	출판·인쇄	31.4	5.5	17.9	0.3	39.7	5.2
	화합물·화학제품	38.9	0.0	13.9	0.0	38.9	8.3
	고무·플라스틱제품	35.5	1.9	16.1	3.9	35.5	7.1
	비금속광물	48.5	2.2	6.5	0.6	34.0	8.2
	제1차금속산업	20.4	7.8	19.9	3.9	35.9	12.1
	조립금속·기계장비	27.5	7.7	17.2	3.0	36.9	7.7
	전기·통신·시계	30.3	8.1	12.2	5.9	36.2	7.3
	자동차·운송장비	13.5	12.2	25.6	1.3	33.3	14.1
	가구·기타제조업	37.1	3.1	13.1	3.1	36.0	7.6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차·운송장비업종은 인력확보에 있어서 타업종보다 업체간 경쟁이 심하게 나타났다.

한편 수출 부문에 있어서 중소기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자재가격상승이 26.0%, 제조경비상승 17.5%, 인건비상승 15.1%, 해외시장정보부족 9.6% 등의 순이며, 업종별로는 종이제품, 화합물·화학제품이 원자재 가격상승, 목재·나무제품은 제조경비 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많았으며, 고무·플라스틱, 자동차·운송장비업종은 인건비상승으로 인한 애로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Ⅲ. 자금사정 동향

'95. 3/4분기중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곤란한 것으로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56.7%로 전 분기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한 데 반하여 원활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8%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섬유제품, 목재·나무제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조립금속·기계장비업종에 있어서 자금사정이 더욱 곤란한 상태로 나타났다.

자금사정의 곤란요인을 살펴보면 외상판매대금의 회수지연이 68.2%(복수응답)로서 가장 높고, 판매부진이 63.8%, 제조원가상승 51.8%, 금융기관이용곤란 36.6%, 거래처부도 29.8% 등의 순으로 나타나 거래처부도로 인한 자금사

〈표 3〉 수출상 애로사항

(단위 : %)

구 분		원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상 승	제조경 비상승	기술수준및 신제품개발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해외시장 정보부족	개도국의 시장침투	수입국수 입제한	품질 미흡
중 소 업	'95. 2/4분기	31.3	13.4	16.8	5.6	10.1	10.5	7.8	1.5	3.0
	'95. 3/4분기	26.0	15.1	17.5	7.9	9.5	9.6	8.5	1.5	4.4
관 형 태 별	내 수 업 체	26.3	14.3	19.7	7.0	8.5	11.5	7.3	1.6	3.8
	수 출 업 체	25.9	15.6	15.8	8.5	10.2	8.2	9.4	1.4	5.0
업 종 별	음 식 료 품	33.3	10.0	13.3	6.7	6.7	13.3	3.3	10.0	3.4
	섬 유 제 품	15.3	11.8	11.8	16.6	11.8	14.4	12.7	0.4	5.2
	의복·모피·가죽	23.3	15.6	21.1	3.3	14.4	7.8	11.1	1.1	2.3
	목재·나무제품	25.0	16.7	41.7	8.3	0.0	0.0	0.0	8.3	0.0
	펄프·종이제품	48.1	14.8	14.8	3.7	11.1	0.0	7.5	0.0	0.0
	출판·인쇄	42.9	9.5	9.5	0.0	0.0	4.8	33.3	0.0	0.0
	화합물·화학제품	55.6	2.8	8.3	5.6	8.3	8.3	8.3	0.0	2.8
	고무·플라스틱제품	17.9	25.6	17.9	10.3	12.8	2.6	5.1	2.6	5.2
	비금속광물	11.1	0.0	33.3	11.1	5.6	11.1	16.7	0.0	11.1
	제1차금속산업	40.0	15.0	11.7	5.0	1.7	8.3	6.7	0.0	11.69
	조립금속·기계장비	28.6	16.8	21.7	5.0	11.8	11.2	1.9	2.5	0.5
	전기·통신·시계	22.1	15.3	20.6	3.1	9.2	10.7	5.3	3.1	10.6
자동차·운송장비	37.7	24.5	15.1	9.4	5.7	7.6	0.0	0.0	0.0	
가구·기타제조업	23.2	20.0	22.1	6.3	6.3	4.2	14.7	0.0	3.2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정의 곤란요인이 전분기 보다 크게 늘었고 반면에 제조원가상승으로 인한 자금난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섬유제품, 목재·나무제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조립금속·기계장비 등의 업체들이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규모에 있어서는 종업원이 200인 이상 300인 미만업체의 자금사정이 그 이하의 소규모 기업층의 자금사정보다는 덜 곤란한 상태이며 지역별로는 인천, 충북, 전북지역의 업체들이 타지역업체들에 비해 자금사정이 더 곤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제조업체들이 겪는 자금사정의 곤란요인에는 여러 항목이 있는바, 〈표4〉에서 보는 바와같이 화합물·화학제품, 제1차금속업종의 경우 금융기관 이용곤란이 자금

사정의 곤란을 겪게하는 요인이 타업종이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재·나무제품, 비금속 광물업종은 거래처부도로 인한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자금의 조달방법은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융자가 66.9%로 가장 높고 私債 이용은 21.3%, 제2금융권 이용은 11.3%등의 순으로 前分期보다 私債를 利用한 자금조달비율이 증가한 反面, 제2금융권과 은행융자를 통한 조달비율은 다소 낮아졌다.

업종별에 있어서는 목재·나무제품, 자동차·운송장비등의 업종이 은행융자를 통한 자금조달비율이 높았고 私債利用은 출판·인쇄업종과 가구·기타제조업 그리고 종업원 5~19인의 소기업들이 前分期와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다. 조

〈표 4〉 자금사정곤란 요인

(단위 : %)

구 분		금융기관 이용곤란	관 매 부 진	외상판대금 회수지연	제조 원가상승	과다한사업 규모확대	사채이용 곤란	거래처 부 도	내부자금 수요증가
중제 조업	'95. 2/4분기	33.1	63.1	65.7	65.7	5.8	4.6	21.4	19.1
	'95. 3/4분기	36.6	63.8	68.2	51.8	6.6	4.0	29.8	15.1
관형 태별	내 수 업 체	35.4	64.1	72.3	50.9	6.5	4.2	32.5	15.5
	수 출 업 체	41.9	62.9	50.8	55.6	7.3	3.2	18.5	13.7
업 종 별	음 식 료 품	40.6	78.1	65.6	53.1	9.4	6.3	15.6	21.9
	섬 유 제 품	33.7	68.6	66.3	43.0	4.7	2.3	20.9	3.5
	의복·모피·가죽	38.5	79.5	61.5	56.4	10.3	5.1	20.5	7.7
	목재·나무제품	40.0	73.3	86.7	26.7	6.7	0.0	66.7	0.0
	펄프·종이제품	37.5	70.8	66.7	62.5	4.2	8.3	25.0	8.3
	출판·인쇄	33.3	81.0	78.6	69.0	7.1	11.9	9.5	0.0
	화합물·화학제품	53.3	66.7	66.7	66.7	0.0	6.7	26.7	13.3
	고무·플라스틱제품	28.1	50.0	81.3	40.6	6.3	6.3	43.8	9.4
	비금속광물	27.1	70.0	78.6	35.7	5.7	7.1	60.0	2.9
	제1차금속산업	52.8	41.7	61.1	38.9	5.6	0.0	47.2	33.3
	조립금속·기계장비	38.5	46.2	63.5	52.9	11.5	1.9	29.8	31.7
	전기·통신·시계	43.4	58.5	66.0	54.7	3.8	1.9	28.3	22.6
	자동차·운송장비	25.9	63.0	55.6	70.4	7.4	0.0	11.1	48.1
	가구·기타제조업	36.1	69.4	66.7	63.9	4.2	2.8	22.2	8.3

주 : 복수응답 비율임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사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기서 私債利用은 긴급자금의 일시용통이 48.1%, 담보·신용부족에 의한 것이 21.8%, 대출한도부족(16.7%) 등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IV. 생산설비 투자동향

企業經營을 擴張할 것인지, 현상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를 가늠케 하는 생산설비 투자동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이 41.4%로서 '95. 2/4분기 보다는 4.2%포인트 감소하여 이는 생산·판매의 호조세가 前分期보다 둔화한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업종별로는 화합물·화학제품, 조립금속·기계장비, 전기·전자·통신기기, 자동차·운송장비 등의 重化學業種과 出版·印刷업종에서 생산설비투자가 활발한 반면, 출판·인쇄를 除外한 기타의 輕工業部門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생산설비투자에 充當할 소요자금은 주로 기업내부자금과 은행융자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나 '95. 3/4분기에는 은행융자를 이용한 소요자금조달이 전분기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조사응답 업체들의 '95. 4/4분기 중 투자계획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表 6〉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업종이 자동화 시설투자(48.0%), 기술 및 연구개발투자(29.0%)부문

〈표 5〉 운전자금 조달방법

(단위 : %)

구 분		은행융자	제2금융권	사채(私債)	회사채·주식
중세 조업	'95. 2/4분기	67.4	12.4	19.6	0.6
	'95. 3/4분기	66.9	11.3	21.3	0.5
관행 태별	내 수 업 체	62.6	12.5	24.4	0.5
	수 출 업 체	86.2	6.1	7.2	0.5
업 종 별	음 식 료 품	65.4	26.9	7.7	0.0
	섬 유 제 품	79.8	8.8	11.4	0.0
	의복·모피·가죽	67.2	10.3	22.5	0.0
	목재·나무제품	88.0	8.0	4.0	0.0
	펄프·종이제품	65.8	7.9	23.7	2.6
	출판·인쇄	48.2	7.2	44.6	0.0
	화합물·화학제품	75.0	8.3	12.5	4.2
	고무·플라스틱제품	70.2	12.8	17.0	0.0
	비금속광물	62.6	11.1	26.3	0.0
	제1차금속산업	67.2	12.5	18.8	1.5
	조립금속·기계장비	67.3	15.4	16.7	0.6
	전기·통신·시계	67.1	3.5	28.2	1.2
	자동차·운송장비	85.4	6.3	8.3	0.0
	가구·기타제조업	55.4	14.3	30.3	0.0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에 集中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직도 많은 中小製造業體들이 人力確保의 어려움과 求人難에서 벗어나 보려는 意志의 表現이 아닌가 싶다. 업종별로는 섬유제품, 의복·가죽제품, 종이제품 등의 업종이 자동화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이 타업종에 비해 유달리 높음을 알 수 있다.

## 二. '96년 산업별 경기전망

여기서는 산업별 경기를 전망하되 중소기업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 Ⅰ. 概況

今年에는 경기확장세와 수출여건도 크게 호전되어 중화학업종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이 호황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국내기업들의 활발한 생산시설·설비투자확대에 편승하여 이와 관련 있는 철강, 일반기계등의 업종은 내수증가 뿐만 아니라 수출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철강은 국내수요에 충족하기도 바빠 수출주문량을 제대로 감당하기조차 어려웠던 반면, 일반기계는 수출에 있어서도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수출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자동차업계를 비롯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家電, 産

〈표 6〉 '95. 4/4 분기 업종별 투자계획

(단위 : %)

구 분		자동화	연구개발	공해방지	복리후생	부동산	교육훈련
중제조업	'95. 2/4분기	46.3	27.2	9.6	5.7	6.0	5.2
	'95. 3/4분기	48.0	29.0	6.7	5.5	6.7	4.1
관형배별	내 수 업 체	48.0	28.7	6.6	4.8	7.0	4.9
	수 출 업 체	47.7	30.7	6.8	9.1	4.5	1.2
업종별	음 식 료 품	41.9	32.3	19.4	3.2	3.2	0.0
	섬 유 제 품	56.3	21.9	12.5	3.1	3.1	3.1
	의복·모피·가죽	60.0	36.0	0.0	4.0	0.0	0.0
	목재·나무제품	60.0	10.0	10.0	10.0	10.0	0.0
	펄프·종이제품	69.6	4.3	13.0	4.3	8.8	0.0
	출판·인쇄	57.5	22.5	0.0	2.5	10.0	7.5
	화합물·화학제품	52.9	29.4	5.9	5.9	0.0	5.9
	고무·플라스틱제품	43.6	30.8	5.1	5.1	5.1	10.3
	비금속광물	46.9	20.4	8.2	6.1	4.1	14.3
	제1차금속산업	37.1	31.4	14.3	5.7	11.5	0.0
	조립금속·기계장비	41.6	35.4	6.2	7.1	8.0	1.7
	전기·통신·시계	51.3	31.6	2.6	1.3	6.6	6.6
	자동차·운송장비	52.8	27.8	5.6	0.0	11.1	2.7
	가구·기타제조업	38.3	35.0	3.3	15.0	6.7	1.7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業用電子, 전자부품, 석유화학 등은 「엔高」에 따른 가격경쟁력의강화와 세계시장의 수요확대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높은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금년도 자동차 수출을 約1백 7만여 대에 이르고 반도체 수출은 2백20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종이 '96년도에는 국내경기의 둔화와 수출여건의 악화를 염려하여 금년보다는 대체로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일반기계나 철강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년도 설비투자계획에 소극적이어서 內需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에게 급속히 보급화된 자동차도 더 이상의 내수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섬유나 신발도 내수회복을 기대하기는 무리이다.

그러나 올림픽 特需가 예상되는 가전, 산업용 전자, 전자부품 등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에 있어서도 올림픽特需와 관련이 있는 가전, 산업용전자, 전자부품 등의 제품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 품목은 내년에도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는 美國 Big 3社의 소형승용차 경쟁력 강화와 日本자동차의 가격경쟁력 우위등으로 수출신장세를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 가 우려된다.

造船은 내년에 세계 선복량의 老朽化로 수주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섬유, 석유화학, 철강 등은 수출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거나 세계

공급물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수출금액의 증가율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할 지도 모른다.

일반기계는 내년에도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개도국들에 대한 수출증대로 금년 수준의 수출신장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내수는 부진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수출도 부진하며, 수출 물량이 증가 하더라도 수출가격의 하락 등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내수와 수출에 있어서 금년보다는 신장세가 둔화되거나 부진할 것으로 우려된다.

## II. 산업용전자

금년에도 높은 신장세를 보인 산업용 전자는 내년에도 내수호조와 수출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생산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영업활동으로 수출호조세가 지속되어 前年('95년) 同期에 비해 18.2%의 수출증가율이 예상되며, 내수도 「윈도우즈 95」에 따른 PC환경의 대용량화로 펜티엄 PC1GB급 이상의 HDD에 대한 수요 급증,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체제 구축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에 따른 수요확대가 예상되어 前年同期에 비해 20%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꾸준한 생산증가로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내수는 노트북 PC 및 멀티미디어 PC 등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신규사업자 선정에 따른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사업화 추진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전년 동기비 22%의 증가가 전망된다.

특히 수입(輸入)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시장확대 및 정보화를 위한 투자 확산에 따른 Computer부문의 수요 증가와 PCS, 무선데이터 등 신규 서비스 제공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수요 증대에 힘입어 '96년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 한해 동안 산업용 전자기기업종은 공급 측면에서 생산 18%, 수입 24.7%의 증가와 수요 측면에서는 내수 21.3%, 수출 19.3%의 증가율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 III. 전자부품

전자부품 산업은 내년에도 세계시장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유효수요 급증으로 지속적인 호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브라운관 등은 수요 과잉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엔高」의 퇴조와 東南아시아 국가들의 생산 증가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37.6%의 높은 증가율이 전망된다.

내수는 Computer, 가전제품, 이동통신기기 등의 고급화 및 대형화로 19.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5인치 이상의 大型 CPT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반도체 LCD등의 칩화 및 모듈화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生産의 경우도 수출 및 내수의 증가세에 힘입어 32.9% 증가한 4백 7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단층 PCB, 콘텐서, 스위치 등의 범용제품은 제품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국내생산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輸入에 있어서는 20.1%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특히 멀티미디어 및 통신기기의 국내수요 확대에 따른 MPU 등 非Memory 반도체, 다층PCB 등의 고부가 가치제품과 중국 및 동남아시아産의 低價品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 IV. 일반기계

내년 일반기계업종은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 둔화로 생산, 내수, 수입 측면에서 올해보다는 신장세가 다소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생산을 올해보다 26.9%가 늘어 난 382억 5천1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수나 수입 부문보다는 둔화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에 있어서는 신장율이 올해보다 높은 46.5%로서 규모면에서 처음으로 1백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계속 호조를 보일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상반기중 생산은 올해의 내수 및 수출 수요 증가 추세가 이어져 前年 同期對比 29%가 늘어난 19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기가 다소 둔화되면서 증가율이 前年 同期보다는 낮아 지겠으나 현재 政府에서 強力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본재산업 육성시책의 효과가 서서히 생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중 수출은 전년 동기비 41.6%가 늘어난 46억 5천2백만 달러로 예상되며 건설중장비, 냉동공조기계, 공작기계 등이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하반기중 생산은 전년 동기비 24.9%가 증가한 1백87억 6천9백만 달러로 예상되며, 수입은 증가 폭이 상반기보다 크게 낮은 12.7%에 머물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출은 前年 同期보다 50.5% 늘어난 60억 4천3백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산업화 노력이 내수부문의 둔화를 타개하면서 수출 확대에 이어질 것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 V. 섬유

내년도 섬유산업의 경기는 내수는 다소 호조를 보이겠으나 수출 경기는 부진하여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수출은 물량이 증가하더라도 單價下落으로 인해 前年對比 2.2% 증가한 1백 88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며 수입 역시 물량 증가와 함께 금액 기준으로 前年對比 11.0% 늘어난 7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화섬업(化纖業)은 산업용 분야의 수요개발 및 확대에 지속적인 賣出증대가 예상된다. 최근 설비투자 확대와 신규 업체의 참여로 화섬 생산량은 크게 늘어날 것이나 화섬원료 가격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채산성은 오히려 惡化될 것이 예상된다.

면방업(綿紡業)은 내년에도 생산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며, 「엔高」의 후퇴로 우리의 主 市場인 日本으로의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원면 가격은 하락 내지는 保合勢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毛紡業은 외국산 모직물의 수입 급증과 국내외 수요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직물업(織物業)은 화섬직물의 수출 부진 및 공급 과잉에 따른 업체간 과당 경쟁의 深化로 채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류업은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나 내수는 캐주얼과 여성복 스포츠웨어 등을 중심으로 매출증대가 예상된다. 이에 반하여 독점 상표권에 대한 병행 輸入制의 實施로 困해 의류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의류 및 국산의류의 가격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業界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 三. 맺음말

대부분의 국내 경제연구소측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경기를 금년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래 4~5년간 세계경기가 나아지고 있으며 세계 전체의 신장율 추이를 보더라도 '92년 0.4%, '93년 0.8%, '94년 2.2%, '95년 2.8%로 꾸준히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3~4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성장세·회복국면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선진국인 日本은 종래의 제로 내지 마이너스 成長에서 약 2% 정도의 성장율을 보일 것이며,

다만 미국의 경기는 금년에 비해 내년에는 다소 나빠질 것으로 보이나 유럽의 경우는 독일이 통일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특히 태평양 연안국들이 7%이상 성장했으며, 그 중에도 中國은 10%이상의 成長을 하였다. 또한 과거 공산사회주의 국가였던 동구권 국가들도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어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을 할것이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국가·지역에 눈을 돌려 해당 국가·지역실정에 맞는 수출전략을 세워 적극 공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내년에도 원유 및 원자재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며, 기타 원자재 가격도 내년에는 소폭이나마 내릴 것으로 보여 우리 수출기업에는 유리한 측면으로 作用할 것이다. 환율에 있어서도 다소 의견차이는 있으나 100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큰폭의 환율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적인 전망이다. 그러므로 수출지향적인 기업에게는 내년 한해도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내수시장

은 협소한데다 이제는 타국에 대하여도 완전 노출되어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경쟁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더우기 우리 기업의 임금수준은 새롭게 부상하는 경쟁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고 金利도 절대적으로 높아 매우 不利한 立場이다. 기술수준도 선진국에는 따라잡기 아직 멀고 사회간접시설도 充分치 못하여 物流費用의 負擔이 큰 것도 우리 企業의 경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각종 행정적규제도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며 산업구조의 조정도 정부와 기업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순조롭지도 않거니와 또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때 결국 우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길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을 깊고 넓은 시각과 안목으로 순발력있게 대응하고 적응하는 자구력을 키워나가는 것 뿐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타는 기업에 한하여 장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